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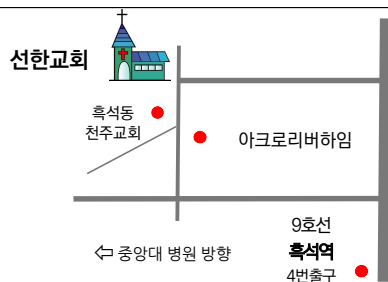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3부(청년)주일오후 1: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해외협력선교사	이금춘, 김인실
	박 희 태, 유 신 웅		조나단, 강야엘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조 윤 익, 박 영 근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고린도후서 4:14)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2부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8장 (통일찬송가 28장)
	교 독 문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
	찬 양 과 경 배		436장 (통일찬송가 493장)
	기 도		박영근 장로
	동 영 상		선한교회 40주년 기념 영상
	말 씬 봉 독		고린도후서 4장 11 ~ 18절
	설 교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율법대로 행하는 통치자 (잠28:1-14)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4 0 년 사 발 간	‘선한교회 40년사’가 발간되었습니다. 예배후에 1층 로비에서 나누어드릴 예정이오니, 각 가정별로 한부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2. 성 탄 예 배 안 내	24일(금) 성탄전야행사가 있습니다. (오후 8시) ※ 24일 금요기도회는 성탄전야행사로 대신합니다. 25일(토) 성탄축하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1시)	
3. 예 배 안 내	1. 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2부 나누어 드립니다. 2부예배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2. 주중예배: 대면예배로 드리고 금요기도회는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4.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읽기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5.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6. 2 0 2 2 년 달 력	2022년 벽걸이와 탁상용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별로 한부씩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주님을 신뢰하도록
--------------	--

가정예배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삶이 예배다

찬송 :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통 325)
본문 : 고린도후서 6:16, 로마서 12:1
말씀 :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후6:16)*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12:1)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는 성전이 따로 없었고, 예배시간 또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였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때의 교제와 그때의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래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던 관계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그 관계와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정해진 시간-추수가 끝난 후-과 정해진 장소-제단-에서 각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광야시대에는 성막에서 절기에 따라 제사를 드렸고, 왕국시대에는 성전에서 절기에 따라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원래의 예배가 어떤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어린양의 피가 요구되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예배가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란 죄가 없는 상태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이룰수 없는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단번에 이루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들인 모든 이들은 거룩하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즉 예배가 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른 우리의 모습을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서 ‘나는 절묘하게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 라고 생각 하거나 혹은 ‘나같은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없어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공적인 예배시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 마음속 주인으로 계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습관적이고 상투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스러우심을 찬양하며 칭찬해드리 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셔서, 그 회복을 위해 예수님을 이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공예배와 우리 마음의 예배 그리고 일상의 예배가 모두 회복되며, 뜨거워지며, 은혜가 선포되며,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며, 축복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 (고후4:11-18)	
서론	바울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 고백합니다.	
본론	1.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은	
	(1)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 (11,12절)	
	(2)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14절)	
	(3) 겉사람이 낡아져가도 낙심하지 않음(16절)	
	(4)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중하게 여김(17,18절)	
	2. 교훈	
	(1)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각오하는 것은 무엇인가?	
	(2)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지고 있는가?	
	(3) 잠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가?	
결론	주님을 위해 속사람이 강해지고 영원한 것을 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박영근 장로	조계승 장로

매일 Q.T.		전능자의 두려운 위엄만 부각하는 반쪽 신앙	날짜 : 12월 20일
찬양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본문	욥기 37:14-24		
말씀요약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명령으로 움직이는 번개와 구름의 경이로움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전능자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권능은 크시며, 그분은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목상질문 1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깨달으라 37:14-20 하나님의 ‘엄위하심’만을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게 하나님은 언제든 가까이할 수 있는 분인가요, 선불리 가까이하기 어려운 분인가요?		
목상질문 2	하나님을 경외하라 37:21-24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엘리후가 ‘하나님 경외’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랑으로 경외하는 것과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한절목상	욥기 37장 18절 엘리후가 언급한 거울은 현대인이 사용하는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이 청동을 두드려 하늘을 만드셨고, 이렇게 만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고정하셨으며, 청동 안의 방들 문을 열면 비와 바람과 눈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을 향한 엘리후의 정죄는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그의 지식은 높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고난당한 이를 정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저 높고 넓은 하늘에 구름을 겹겹이 쌓으시는 창조주의 손길이 얼마나 오묘한지요! 구름이 물러나 햇빛이 찬란히 드러나게 하시듯, 주님이 제 삶의 먹구름도 걷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살아 계신 주님의 존재를 느끼며, 완전한 지식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응답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기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새 90, Ab→G)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영화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남긴 한마디가 뇌리에 깊이 남았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은 적군의 대장과 마주합니다. 적장은 주인공이 함부로 활을 쏘지 못하도록 주인공의 동생을 포로로 삼아 자기 앞에 방패막이로 세우고는 의기양양해서 자신의 승리를 장담합니다. 그때 활을 겨누고 있던 주인공이 이렇게 독백합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주인공은 이 한마디 말을 하고는 활시위를 놓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가르고 날아간 화살은 적장 바로 앞에 있는 동생을 스치듯 비껴가 뒤에 있는 적장에게 적중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절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느라 섣길로 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고난은 계산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저는 주인공의 한마디를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고난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어려움을 말씀과 믿음으로 통과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말씀 나누기	욥기 38:1~21
목상포인트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이 이제껏 변론하며 논쟁의 주제로 삼았던 문제, 즉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 인과 관계 문제, 악한 자들의 변명과 같은 내용에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조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역설적으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던지신 70여 개의 질문은 모두 욥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인간은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깊으신 뜻을 물으며, 겸손히 행하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도리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1~3절)
적용하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도해야 할까요? 나의 기도에서 달라져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저를 향한 주님 뜻을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매사에 주님의 높으신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행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메시아를 통해 세워지는 평화의 나라	날짜 : 12월 24일
찬양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본문	이사야 11:1-9		
말씀요약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입니다.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묵상질문 1	평화의 나라 11:1-5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이(메시아)는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그분의 통치 방식이 내게 주는 위로와 소망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창조 세계의 회복 11:6-9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한절묵상	이사야 11장 9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늘 힘씁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이 땅에 주님이 처음 오셨던 때를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전심으로 고대합니다. 서로 해함 없이 어우러지는 평화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제 영이 충만히 채워져, 누구에게든 복된 소식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매일 Q.T.		인간이 알 수 없는 창조 세계의 거대함	날짜 : 12월 21일
찬양	찬송가 20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본문	욥기 38:1-21		
말씀요약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말을 하는 욥에게 질문에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그가 어디 있었는지, 바다의 한계를 정한 자가 누구지, 사망의 문을 보았는지,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는지 등 이 모든 것에 대해 답하라고 하십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의 질문 38:1-3 하나님이 친히 현현해 말씀하신 것은 욥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묵상질문 2	창조 세계의 정교함과 거대함 38:4-21 세계 창조와 관련한 하나님의 질문은 욥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고백하나요?		
한절묵상	욥기 38장 3절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욥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방식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피고로 법정에서 세우려 했지만, 자신이 피고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욥의 죄목은 '무지와 무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은 결코 '대장부'가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우주 만물의 생성과 운행에 관한 기초도 온전히 모르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무지한 말로 항변한 저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말씀과 만물 속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도록 지혜와 겹겹의 영으로 함께하소서.		

매일 Q.T.		인간이 알 수 없는 기후와 천체 현상	날짜 : 12월 22
찬양	찬송가 69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본문	욥기 38:22-38		
말씀요약	하나님은 욥에게 눈 곳간과 우박 창고를 보았는지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환난 때와 전쟁의 날에 사용하십니다. 또한 비·이슬·얼음·서리의 기원인지, 묘성·삼성 등을 다룰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구름의 수를 세거나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묵상질문 1	다양한 기후 현상 38:22-30 '사람 없는 땅,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26-27절) 황폐한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어떠한가요?		
묵상질문 2	천체와 비의 통제 38:31-38 천체 묘사에 나타나는 과학적 정확성은 어떠한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나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욥기 38장 36-37절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네가 아느냐”(38:5,33)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욥을 깊이 찌릅니다. 욥은 마치 공의와 불의의 기준,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듯이 자기를 변호하며 하나님을 법정에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신비 앞에 무릎 꿇으라고 명하십니다.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악을 쓰며 항변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누가…?”라고 근원을 물으실 때 제가 드릴 답변은 “하나님!”뿐입니다. 살아온 햇수가 오래되었다고 한들 영원에 비하면 단 한 뼘 길이도 되지 않으니, 지식이나 연륜을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저 자신의 힘을 빼고, 무한하신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게 하소서.		

매일 Q.T.		동물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배려와 돌봄	날짜 : 12월 23
찬양	찬송가 32 만유의 주재		
본문	욥기 38:39-39:4		
말씀요약	하나님은 욥에게 사자의 식욕을 채울 수 있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 거리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는 이가 누구인지 물으십니다. 또한 산염소와 암사슴이 번식하는 이치를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어미는 몸을 구꾸려 새끼들을 낳고, 새끼들은 강해져 빈 들에서 크다가 떠나갑니다.		
묵상질문 1	사자와 까마귀 38:39-41 사자와 까마귀 같은 난폭하고 부정한 동물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한 사실에서 내가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산염소와 암사슴 39:1-4 하나님이 산염소와 암사슴 새끼에게 정하신 생활 방식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특성임을 인정하고 내가 수용할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욥기 38장 41절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먹이고 기르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에 속한 일입니다. 욥이 얻은 자녀들, 그가 즐기던 잔치와 산해진미, 그리고 그가 기르던 수천 마리의 가축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주신 이유를 모른 채 은혜로 받아 누리던 것들이라면, 거두어 가신 이유를 알지 못해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무엇을 주시든 거두어 가시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제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조차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을 “하물며 나의 형상으로 지은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라는 사랑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님의 섬세한 눈길과 손길로 저를 살피시고 보듬어 주소서.		